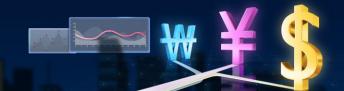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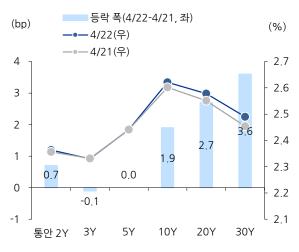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팀)							
		4/22일	1D	1W	YTD	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330%	-0.1	-6.9	-26.6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621%	1.9	-4.3	-23.4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9.1	27.1	26.5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70	-2.0	25.0	105.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20.84	-22.0	48.0	392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825%	5.9	-2.4	-41.5		
	미국채 10년물	4.404%	-0.8	2.7	-16.8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8.0	64.7	52.9	33.3		
	독일국채 10년물	2.443%	-2.6	-12.7	7.9		
	호주국채 10년물	4.210%	-2.4	-13.8	-15.8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전일 미국채 커브 스티프닝에 연동, 장 초반부터 장기 물 중심 약세 흐름이 이어짐.
- 여기에 수급 부담도 가세. 오전 중 야당, 추경 심사 방향 발표하며 일부 증액 추진 의사를 언급. 기재부는 내달 국발계 경쟁입찰 규모를 이달(17조원) 대비 늘릴 것을 시사.
- 국내 경기 둔화 우려로 약세폭은 제한. 개장 전 한은 총
 재, IMF가 발표할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대비 상당폭 하향될 것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발언.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베센트 재무장관, 백악관 측 관계자 발언으로 미중 관세 협상 기대 확대. 이에 위험선호심리 부각되며 단기 금리 반등. 미국채 2년물 입찰 결과가 부진했던 점도 영향이 컸음.
- 반면 전일 급등한 10년 금리는 하락. 스티프닝이 급하 게 진행된만큼, 저가 매수 등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나 타난 것으로 해석.
- 한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, 관세발 인플레는 지속가 능하지 않다는 점을 연준이 보장해야 함을 강조.



FX & Commodity (단위: %, s							
		4/22일	1D	1W	YTD		
휜율	원/달러	1,420.60	0.1%	-0.3%	-3.5%		
	달러지수	98.97	0.6%	-1.2%	-8.7%		
	달러/유로	1.142	-0.8%	1.2%	10.3%		
	위안/달러(역외)	7.31	0.2%	-0.2%	-0.3%		
	엔/달러	141.60	0.5%	-1.1%	-9.9%		
	달러/파운드	1,333	-0.4%	0.8%	6.5%		
	헤알/달러	5.73	-1.3%	-2.7%	-7.4%		
상품	WTI 근월물(\$)	64,31	1.9%	4.5%	-10.3%		
	금 현물(\$)	3,380.88	-1.3%	4.6%	28.8%		
	구리 3개월물(\$)	9,354.00	1.8%	2.2%	6.7%		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1.50원 상승한 1,420.6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24.00원 마감.
- 전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 출발한 달러-원은 개장 직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오전 중 1,427원선까지 반등. 그러 나 점심 무렵부터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.
- 백악관의 파월 의장 해임 우려에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 서 달러-원 상승폭을 제한. 장중 별다른 추가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음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과 파월 의장 해 임 우려 완화에 급반등.
- 간밤 베센트 재무장관은 JP모건 투자자행사에서 미중 간의 긴장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 했따는 보도가 등장. 백악관도 중국과 대화가 잘 진행 되고 있다고 언급함.
- 미국 금융시장 마감 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하나 해고할 생각은 없 다고 언급하면서 달러는 추가 급등. 그간 달러 약세 국 면에서 급등했던 유로화, 엔화 등은 일제히 약세.
- 전일 공개된 IMF 경제전망에서 2025년 글로벌 성장률은 기존 3.3%에서 2.8%로 하향, 미국은 2.7%에서 1.8%로 대폭 하향됨.